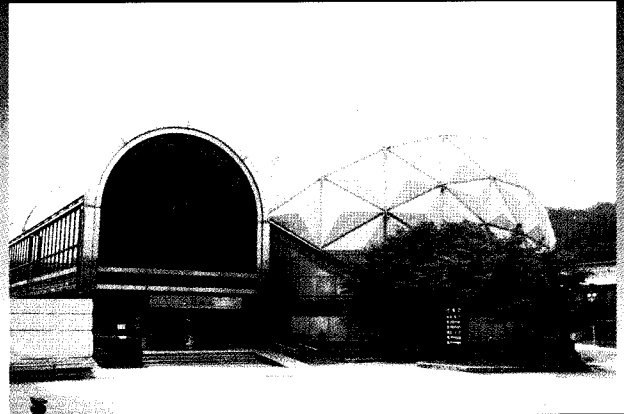


## 대한민국 과학의 심장부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우리나라의 첨단과학기술, 기초과학, 과학기술역사, 자연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며, 연구와 전시를 하는 대전국립중앙과학관은 명실 공히 우리나라 과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다. 이곳에 국내에서 현존하는 광학식 천체투영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의 플라네타리움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연간 10만 명이 찾는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은 21세기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의 과학화를 도모해 나가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을 배양하는 과학기술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1990년 9월에 '대전국립중앙과학관' 개관과 더불어 건립되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우리나라 과학의 중심부인 대덕연구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이 유성구의 대덕대로 변에 우리나라 과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대전국립중앙과학관'이 위치해 있다. 입구에서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입장료(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를 내고 과학관으로 들어가면 북동쪽 방향에 천체관이 위치해 있고, 좌측으로는 상설전시관, 우측으로는 탄동천과 그 주변으로 자기부상열차가 다니는 선로가 있다.

천체관 내에는 23m 천체투영실과 광학식 플라네타리움, 70mm 필름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사기, 80여 대의 멀티 슬라이드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1990년에 일본에서 경제협력차관 형태로 도입된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천체투영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3m의 거대한 돔에서 보는 별자리의 아름다움은 소규모의 광학식 플라네타리움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정말 우주 한기운데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그리고 70mm 필름영화를 이용해서 과학관에서 직접 제작한 3D HD급 별자리 애니메이션 영화와 국내 업체에서 제공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민천문대나 천문과학관들은 대부분 디지털 천체투영기를 이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 화질이나 콘텐츠의 다양성면에서 조금은 뒤처지는 면이 있다. 다행히 올해 안에 새로운 디지털 투영기가 도입될 예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기대된다.

천체관의 관측장비로는 소구경 망원경 9대를 보유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천체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열린 관측회, 찾아가는 천체관 행사 등에서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 태양관측, 행성 및 천체관측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은 6가지의 천문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체관 상시 상영프로그램으로 매일 5회 천체관에서 별자리 영상 상영과 70mm 필름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천체관에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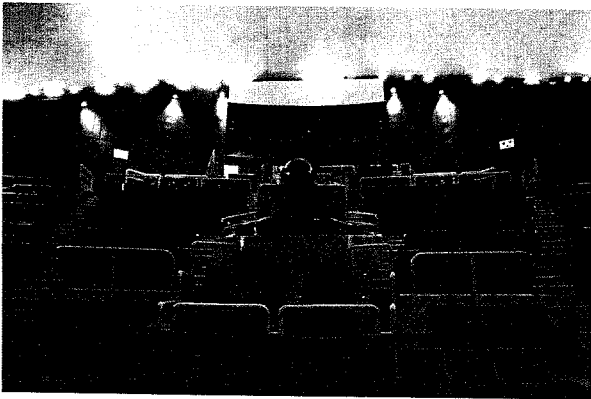
영되고 있는 '4계절 별자리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3D HD급 애니메이션 영화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직접 제작한 국내 최초 돔 영화라고 한다. 또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음악과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은 인근의 대전시민천문대에서 실시하는 '별음악회'와 비슷하게 천체투영실 내에서 투영된 별을 보며 음악회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 12월부터 시작해서 32회 정도 진행하였고, 인기가 높다고 한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제외한 다른 주 토요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천문학 기초 이론 교육과 별자리 찾기 및 별자리에 담긴 신화설명을 하는 '별자리 탐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별자리 탐험과 유사하면서도 태양흑점관측도 병행하는 '천체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한 행사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1회, 하루 4시간동안 고등학생 천문동아리 대전연합(HACT)가 진행하는 '열린 관측회'가 있다. 장소와 예산지원, 장비는 과학관에서 지원을 하고, 순수하게 고등학교 천문동아리 회원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별자리 교육과 별자리 전기 등 다양한 천체관련 이벤트와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열의도 대단하고, 그에 따른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겁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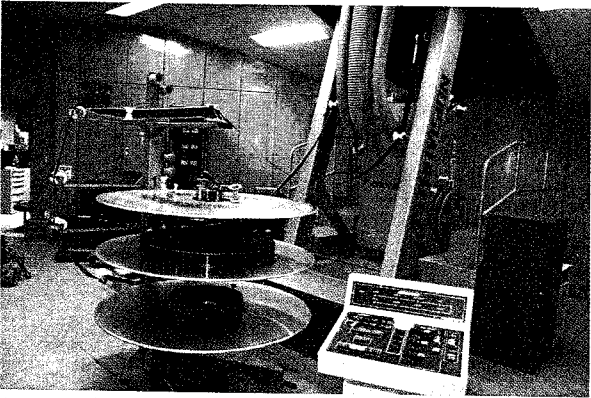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은 전시연구센터 전시기획 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장, 과장, 주무관 3명이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확충 및 유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대구경 망원경과 원형돔, 슬라이딩 돔 등 관측시설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천체투영실 시설 확충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천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관측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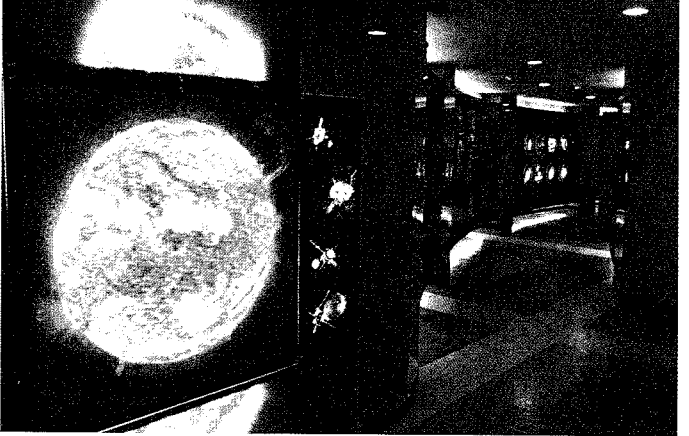




▶ 지름 23m 천체투영실. 광학식 플라네타리움 중 국내 최대 규모이다.



▶ 70mm 필름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사 시스템



▶ 전시장

## ■ 천문대 일반 현황

1990년 9월 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1(구성동 32-2)

### ▶ 주요 시설

#### ● 천체관 시설

- 천체투영실 : 23m / 경사도 30도

- 좌석수 : 194석

- 광학식 플라네타리움, 70mm 필름영화

※ 2008년 12월자로 디지털 플라네타리움 설치 예정

- 보조망원경 : 200mm 반사망원경 1대 / 150mm 반사망원경 1대

120mm 굴절망원경 2대 / 90mm 굴절망원경 4대 / 80mm 굴절망원경 1대

### ▶ 교육 내용

● 상시 상영프로그램 : 매일 5회 상영 / 로티버비의 우주여행 & 별자리 영상 상영

● 음악과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 : 매일 첫째 주 토요일

● 별자리 탐험 : 매월 2~5주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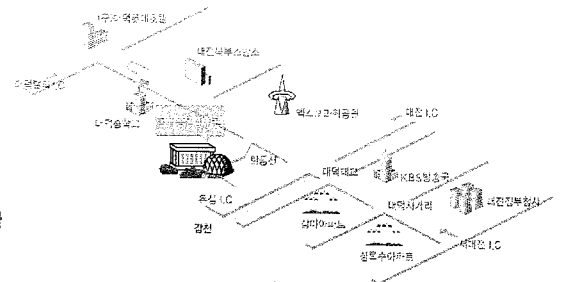
● 천체야카데미 : 매주 일요일

● 열린 관측회 :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1회(년 2회) - 1일 4시간 진행

● 찾아가는 천체관 : 소외지역, 벽지학교를 찾아가서 천체관측 행사 진행

▶ 홈페이지 : <http://www.science.go.kr>

전화 : 042-601-7894



▶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약도